그 사람 지금은

(15) 옥만호 前 공군참모총장

"항공·우주에 대한 청소년들의 꿈 키워야죠"

무안군 무안읍에서 동쪽으로 4km가량 떨어진 몽탄면 사창리에는 우리 공군의 발전상과 항공우주과학 발달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전시장이 있다. 평생 하늘을 지키는 '보라매'로 살아온 옥만호(81) 전 공군참모총장이 지난 1998년 4월 사재 13억원을 털어 고향 마을에 설립한 '호담(昊潭) 항공우주전시관'이다.

무안국제공항과 고흥우주센터가 들어서고 있지만 지역내에 이렇다 할 상징물 하나 없는 상황에서 이 전시관은 청소년들의 항공우주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자극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항공·우주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애국심과 과학입국의 꿈을 심어주기 위해 전시관을 건립했습니다."

옥 전 총장은 "세계적으로 항공·우주과학 분야의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안타까워 했다.

'항공·우주분야 연구는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옥 전 총장은 이를 발전시키려면 어려서부터 꾸준히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98년 무안에 항공우주 전시관 세워

NASA 자료·실물항공기 등 전시

이 전시장의 실내 전시관(250평)에는 옥 전 총장이 수십년에 걸쳐 마련한 손때 묻은 자료들이 빼곡하다. 틈나는 대로 미국 항공우주박물관이나 항공우주국(NASA) 등지에서 구해 보관해왔던 것들이다. 1천여장의 사진 및 필름, 모형은 항공·우주발달사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도록 해주며 전쟁기록물로서 자료적 가치가 높은 것도 많다.

야외에 마련된 3천여평의 실물항공기 전시장에는 퇴역한 10여개 기종의 항공기와 전투기가 전시되어 있다. 공군에서 기증한 것들이다. 한국 전쟁 당시 하늘을 날던 F-51(무스탕)과 F-86을 비롯 F-5A, T-6, T-33, T-28 등 각종 전투기와 수송기, 훈련기, 헬리콥터는 물론이고 북한의 AN-2, MIG-15기까지 망라돼 있다. 덕분에 개관 이후 지난 8년여동안 전국 초·중·고 학생들의 수학여행 코스로 인기를 끌어 왔으며 연간 3만~4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

옥 전 총장이 처음 '하늘'에 관심을 두게 된 것은 해방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무안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나고야에서 중학교를 나온 그는 '날고 싶다'는 일념으로 16세때 일본비행학교에 들어갔다. 옥 전 총장에 앞서 공군참모총장을 지낸 김두만 총장(11대)과 그의 뒤를 이은 주영복 총장(13대)이 동기생이다. 1950년에는 공군사관학교(소집 2기)를 졸업, 꿈에 그리던 조종사가 됐다.

6·25 한국전쟁 당시에는 한국 공군의 에이스로 평양대공습 등 134회나 출격해 출중한 조종솜씨를 인정받았다. 그 중에서도 난공불락을 자랑하던 대동강 송호리철교 격파는 공군 전사에 전설처럼 남아 있다.

약 력

▲1925년 9월 2일 무안읍 사창리 출생
▲일본비행학교, 공군사관학교(소집2기) 졸업
▲6·25 당시 한국 공군에이스로 134회 출격
▲공군대학 총장, 공군사관학교장, 공군참모총장
▲주콜롬비아·주대만대사, 제13대 국회의원
▲금성·은성충무무공훈장, 미국비행훈장

"북한군 훈련장이 인근에 있었고 식량과 무기를 공급하는 주요 보급로였던 평양 동쪽의 송호리 철교는 폭탄을 안고 자폭하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격파해야할 타겟이었지만 미군조차 공격에 실패했죠."

김두만 소령이 이끄는 편대가 북한군의 거미줄 같은 대공포화에 막혀 공습에 실패한 사흘 뒤인 1952년 1월 15일 당시 대위였던 옥 전 총장과 윤응렬 대위가 이끄는 6기의 무스탕 편대가 강릉기지에서 출격했다. 이들은 격렬한 대공포화를 뚫고 4천피트 고도로 철교에 진입한 뒤 1천500피트까지 급강하하는 목숨 건 초저공 비행으로 폭탄과 로켓탄을 교각에 명중시켰다. 우리 공군의 힘만으로 성공적인 작전을 수행해낸 것이다.

이에 앞선 1951년 9월에는 인민군이 진주했던 해인사를 폭격하라는 미군의 명령을 거부하고 팔만대장경과 해인사

6·25 당시인 1952년 4월 18일 경남 사천비행장에서 100회 출격을 기념해 동료 조종사들과 F-51 앞에 자리를 함께 했다. 가운데 꽃다발을 든 이가 옥만호 전 총장.

를 구해낸 고 김영환 장군의 편대원으로서 함께 활약하기도 했다.

전후 공군본부 작전국 차장, 제10전투비행단장, 공군대학 총장, 공군사관학교장을 거쳐 1974년 8월 최고자리인 공군참모총장으로 예편하기까지 그가 한국 공군사에 기여한 공로는 지대하다. 20여개에 달하는 훈장이 이를 웅변해주고 있다.

1960년 주중(대만)대사관 무관으로 파견 근무했던 인연으로 옥 전 총장은 1975년부터 1981년까지 주 콜롬비아대사와 주 대만대사(1978~1981)를 지냈다. "주 대만대사 시절에는 장개석의 동생과 가깝게 지냈지."

한국전쟁 당시 134회 출격 '공군에이스'

대동강 송호리 철교 격파 '공군사 전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소개로 김종필(JP) 전 총리를 만나 정치적 역정을 함께 하면서 신민주공화당 당무위원과 제13대 국회의원(전국구), 민자당 당기위원장을 역임했다. 지금도 김 전 총리와는 '동갑내기 벗'으로서 가깝게 지내고 있다.

의원 시절에는 한반도 핵문제를 집중 거론, "모든 정책에 우선하여 북한의 핵무기 보유 저지에 내각의 운명을 걸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정치는 정치가가 해야지 우리 같은 사람은 적응하기 힘들어"라면서도 "요즘 정치인들은 누구를 위해 정치를 하는 지 알 수가 없어. 국가보다도 자기 중심, 자신의 이익을 우선하는 현실이 안타까울뿐이지"라고 타협과 상생의 정치를 주문했다.

조국의 영공을 지켜온 원로 '빨간 마후라' 옥 전 총장은 이달 초 무안 전시장으로 거처를 옮겼다. 그는 이 곳에서 '젊은이들이여 내 뒤를 따르라'며 후배들이 하늘과 우주를 제패하는 날을 꿈꾸고 있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사진=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 전라도 역사이야기 -고흥 소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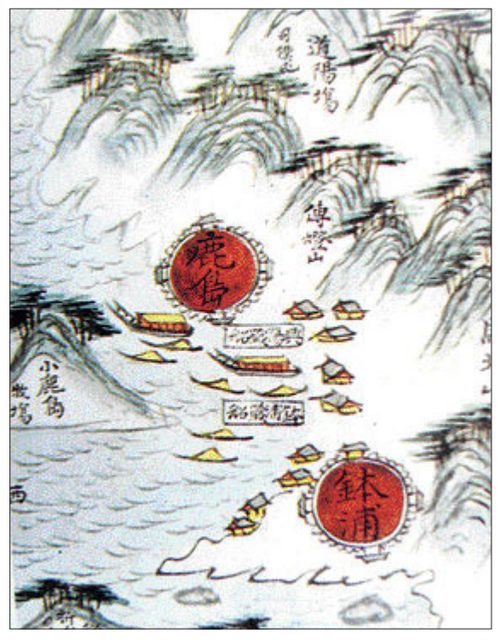
일제강점기 한센병환자 수용 검시실 등 등록문화재로 지정

유자의 고장, 고흥 남서쪽에 있는 소록도를 찾아간다. 한하운이 노래한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이 아니라 벌교부터 4차선 포장도로가 녹동항까지 시원하게 열렸다.

곳이 많은 고흥 땅에서 도덕과 풍양면 땅금에 있는 문곶이(門串)부터는 섬이었다. 지형이 사슴을 닮았다해서 '녹도(鹿島)'라 불렀으며, 도양목장(道陽牧場) 터이니 '녹도(綠島)'도 된다.

세종실록에는 녹동항 봉남리 녹도진 만호가 배 8척과, 군사 487명을 거느렸고,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관리마을 도양장에 감목관(종6품)이 주둔했고, 속장으로 '소록도장'이 나온다.

여지도서에는 도양 감목관이 말 353필을 관리했는데, 소록도에 37필을 방목하며, 곡초 3천속을 나라에 봉진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1840년에 제작된 호남도서 흥양지도에 표기된 녹도와 소록도.

소록도는 녹동항 남쪽 건너편 섬으로 녹도가 '큰사슴섬(대록도)'이니 대응하여 '작은사슴섬'이라는 뜻이다. 200호 1천여 명이 살고 있던 목장섬 소록도는 일제강점기 한센(癩)병 환자의 집단 수용처가 된다.

한센인을 돌보기 시작한 시기는 오방 최흥종이 1913년 조선나병근절대책연구회 발족한데 이어 외국인 윌슨(禹越淳)이 광주에서 봉사한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제는 1916년 조선총독부령에 의거 전라남도 소록도 자혜의원을 설치한다.

원주민들의 강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섬 전체의 1/5인 30만평을 강제로 매입하고, 47동(388평)의 건물을 짓고, 환자 73명으로 갱생원을 열었다. 최초 구북리에 병사(病舍)를 짓고, 신사를 설치하고 생활양식을 일본식으로 하도록 강요했다. 1920년대 2대 원장 하나이(花井善吉)는 원만한 운영으로 원생들이 창덕비까지 세웠지만, 1930년대 1~3차 확장공사를 주관한 수호(周防正季) 원장은 악독하여 1942년 이춘상의 칼에 죽었다.

10년 전 발행된 '사진으로 보는 소록도 80년사'를 펼쳐본다. 1933년 연산 140만장 벽돌공장 완공. 1935년 중앙리 갯벌을 메워 병사와 운동장·치료본관·사무본관·중앙공회당 등 501동 건립. 발전소와 광주형무소 소록도지소 개원. 1937년 간호부 양성소·납골당인 만령당· 등대 건설. 1938년 일주도로 완성과 우편소 개소. 1939년 동생리 선창과 중앙공원 준공. 1941년 6천137명 수용 등이 기록돼 있다.

광복 후 국립 소록도 병원으로 운영되면서 1962년부터 2,753m의 방조제를 쌓아 1천ha의 농경지를 마련한 '오마도 간척공사'가 이뤄졌다. 국제워크캠프단이 방문하여 현대의학으로 나병을 극복한다는 의미로 '구라탑(救癩塔)'을 중앙공원에 세웠다.

지난 2004년 식량창고, 검시실, 감금실, 사무본관과 강당, 만령당, 신사, 등대, 녹산국교, 성실중고가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다. 현재 보건복지부 직원 186명이 주민 640명을 돌보고 있다. 거금도까지 연륙교 공사가 한창이다. 천형(天刑)의 섬에서 천사도(天使島)로 변했다.

/김경수(사)향토문화진흥원장